

#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277천 Km <sup>2</sup>	G D P	573억 달러 (2009년)
인구	13.63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4090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S Dollar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 (달러당)	1.00 (2009년)

-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는 상업과 수출, 안데스 고지대는 소규모의 농업과 서비스업, 동부 아마존 밀림지대는 석유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민주주의 체제는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석유 및 농수산물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과거 수차례 디폴트 경험이 있었으며, 2008년 12월에도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본드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지 못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4.8	2.0	7.2	0.4	2.5
재정수지 / GDP	3.2	2.1	-0.9	-5.5	-3.8
소비자물가상승률	3.0	2.3	8.4	5.2	3.9

자료: IMF, EIU.

#### □ 대외경제여건 개선에 힘입어 경제성장세 회복중

-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과 IMF의 금융지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 왔음.
- 2007년에는 정국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주요 유전에 대한 신규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및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원유수출 증가, 건설업 및 금융업 회복 등에 힘입어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2009년에는 디폴트 선언(2008년 12월)에 따른 국제신인도 하락,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재정 악화에 따른 경기부양책 효과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하였으나, 글로벌 경제환경 호전에 따른 수출 부문 개선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이 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지속 추세

- 달러공용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이자 비용 감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확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음.
-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내수 호조와 고용 증대에 따른

세원 확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폭이 GDP 대비 3.2%까지 확대되었으나, 2007년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의해 재정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 한편, 2008년에는 상반기까지 재정수입 증가세가 유지되고 외채원리금 조기 상환으로 인해 재정상황은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반전하였음. 특히,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되고, 신헌법 개정을 대비한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선심성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GDP의 5.5%로 크게 확대됨.
- 2010년에도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른 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꼬레아 정부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 23.8%('06)→27.4%('07)→40.8%('08)→40.7%('09)→39.1%('10, 전망치)

#### □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 전망

- 에콰도르는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2000년 달러 공용화 제도를 도입한 이래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상반기 중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8.4%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성장세 둔화 및 이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물가상승률: 5.2%(2009년) → 3.9%(2010년)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 바나나, 새우에 대한 경제의존도 매우 높아 경제구조 취약

- 원유 수출이 총수출 및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커피, 새우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특화된 경제구조로 인해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에콰도르산 석유 가격은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원유가격의 80% 수준임.

### 나. 성장 잠재력

#### □ 에너지 국유화 및 급진좌파 정책, 채무불이행 선언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전망

- 꼬레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및 선심성 빈민구제 정책 시행 등이 이어지면서, 투자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2008년 디폴트 선언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차관도입 등이 어려워짐.
- 특히, 에너지 국유화의 위협으로 에콰도르의 가장 큰 외화가득원이자 재정수입원인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향후 석유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에콰도르의 최대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06년 53만 6천 배럴이었으나, 2008년 이후 투자환경 악화로 일일 원유 생산량은 50만 배럴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일일 원유 생산량 48만 6천 배럴 → 2010년 초 일일 원유 생산량 46만 6천 배럴

## □ 분쟁 대상 외국 투자기업과 재협상 시도

- 2009년에 에콰도르 정부와 프랑스 석유회사인 Perenco社간의 갈등이 증폭되었음. 2009년 6월 에콰도르 정부가 Perenco社의 탈세 혐의에 대해 3.2억 달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산된 원유를 압수하자, Perenco社는 원유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프랑스 정부도 대 에콰도르 투자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된 바 있음.
- 2010년 현재 에콰도르 정부는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분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외국 원유회사들과 재협상을 연말까지 시도하고 있음.

## □ 대미 FTA 체결 전망 불투명으로 대외수출경쟁력 상실 가능성

- 2009년 기준 미국은 에콰도르 전체 수출액의 34%, 수입액의 25%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에콰도르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향후 대미 FTA 체결 전망이 불투명하여, 미국과의 FTA 체결 및 비준을 추진중인 페루, 콜롬비아 등에 비해 대미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 정책성과

### □ 달러 공용화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상존

- 에콰도르 정부는 1999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0년 3월 달러공용화 제도를 도입함. 이후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과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달러공용화 제도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사실상 영원히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 달러공용화 제도는 중앙은행의 발권(發券)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 신용창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에콰도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국가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음.

□ 급진 개혁 정책 및 포폴리즘적 정책 추진

- 2000년대 경제성장세가 지속, 물가와 재정수지 안정,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07년 꼬레아 정권의 에너지 국유화 확대 및 헌법개정, 대대적인 사회복지 지출 확대 및 급진 개혁정책, 채무불이행 선언(2008년) 등으로 인해 에콰도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임.
- 꼬레아 정권의 급진적이며 반기업적 경제 정책 운용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정부 수입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짐.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sup>e</sup>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1,618	1,650	1,120	-386	260
경 상 수 지 / GDP	3.9	3.6	2.1	-0.7	0.4
상 품 수 지	1,768	1,823	1,371	75	419
수 출	13,176	14,870	19,147	14,344	16,006
수 입	11,408	13,047	17,776	14,269	15,587
외 환 보 유 액	1,456	2,765	3,686	2,820	3,065
총 외 채 잔 액	16,889	17,369	16,851	13,367	13,521
총외채잔액/GDP	41.2	38.3	30.8	23.3	21.8
D S R	19.6	17.6	13.4	17.5	13.1

자료: IFS, EIU.

□ 2010년 경상수지 흑자 반전 전망

- 에콰도르는 2003년까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흑자로 반전하였음.

- 2008년 수출은 3/4분기까지 원유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191억 달러에 달하였고 수입은 내수 호조, 건설업 호황 등에 힘입어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에 반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는 관광산업 위축, 석유수출관련 선박운송료 증가, 외국투자기업의 배당송금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여 2008년에도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2%)가 유지되었음.
- 2009년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로 반전,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5년 만에 적자로 반전되었음.
- 그러나 2010년 상반기에는 상품 수출증가율(17.4%)이 상품 수입증가율(9.6%)을 상회하였고, 서비스 수입의 증가세 완화, 소득 지급액의 감소 추세에 따라 경상수지가 다시 소폭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1997년 이후 대통령 탄핵, 쿠데타 발생 등 정치 불안 지속

- 1978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대통령제 및 단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었고,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음.
- 또한, 군부, 노조, 인디언 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서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여,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1996~2009년간 에콰도르 대통령 변천 과정>

재임기간	대통령	비고 (축출사유 등)
1996. 8. ~ 1997. 2.	Abdaa Bucaram	국민 총파업 발생 후 의회에서 축출
1997. 2. ~ 1998. 8.	Fabian Alarcon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



1998. 8. ~ 2000. 1.	Jamil Mahuad	군부 쿠데타 기도, 대통령 자진 퇴진
2000. 1. ~ 2003. 1.	Gustavo Noboa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3. 1. ~ 2005. 4.	Lucio Gutierrez	대국민 시위 직후 의회에서 축출
2005. 4. ~ 2007. 1.	Alfredo Palacio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7. 1. ~ 현재	Rafael Correa Delgado	대통령 재임시 재무장관 역임

□ 2009년 5월, 꼬레아 대통령 재선 성공

- 2006년 11월 26일 에콰도르 대선에서 빨라시오 前대통령 임기 중 재무장관을 역임한 꼬레아(Correa) 후보가 노보아, 구띠에레스 후보 등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취임 이후 꼬레아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근거로 기존 의회 해산, 제헌의회 구성, 신헌법 제정 등을 관철시키면서, 신헌법에 의거 2009년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 현재에도 꼬레아 정부는 저소득 계층을 기반으로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어 2013년까지의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허용 및 권한 강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국가에 유희농지 등의 몰수 등 권한 부여, 일부 불법 규정 외채 상환거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사회안정, 소요사태

□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사회 불안 요인 다소 경감

- 에콰도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안 지역과 고원 지역간의 갈등, 인종과 이념에 따른 갈등 등 전통적으로 사회적 분열이 심한 국가임.
- 2007년 꼬레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강한 추진력과 정치적 카리스마, 원자재 수출 호황에 의한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의 국민지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 등 사회 불안 요인은 과거에 비해 개선됨.
- 그러나, 국제유가시세 하락 및 세계경기 침체 등에 의한 영향으로 신헌법 제정 시 공약했던 여러 정책들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노동자 및 원주민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Alianza Pais)이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안정적이며, 외부 차입의 어려움으로 인  
 한 재정적 제약에 따라 현 정부의 급진적 정책 실행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3. 국제관계

#### □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과의 갈등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진

-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FARC이 에콰도르 대통령에 70만 달러 상  
 당의 대선자금 지원했다는 증언이 담긴 비디오와 에콰도르 前내무부 장  
 관이 FARC 사단장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음.
- 2009년초,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1,346개 콜롬비아 수입 품  
 목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며,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간의 외교 갈등의 파  
 장이 교역관계로 확산되었음.
  - 동 조치로 콜롬비아의 2009년 대에콰도르 수출은 전년대비 16.1% 가량 위  
 축됨.
  - \* 콜롬비아의 2008년, 2009년 대에콰도르 수출액 : 15억달러(2008년) → 12.5  
 억달러(2009년)
- 한편, 브라질과는 브라질 엔지니어링회사 Odebrecht사 추방, BNDES 채무  
 에 대해 불이행 선언으로 브라질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주 에  
 콰도르 대사를 소환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양국 정상외교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 및 통상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7월  
 에콰도르 대통령은 에콰도르 내에서 브라질 Odebrecht사가 영업을 재개할 것  
 이라 발표함.

## □ 베네수엘라와 관계 강화

- 꼬레아 대통령은 에너지 국유화, 대미 FTA 반대, 사회복지부문 지출증대를 통한 빈민구제를 외채상환보다 우선시 하는 등 급진 좌파 및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우호적인 조건으로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 □ ATPDEA 재연장 합의, 그러나 미국과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

- 한편 대미무역특혜조치인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근절특별법(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ATPDEA)이 200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현재 개정된 ATPDEA에 따라 2010년 12월까지 매년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6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꼬레아 대통령과 역내 마약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당시 에콰도르 정부는 ATPDEA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 마약거래 근절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나, 에콰도르가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 상환 태도

#### □ 대외채무 리스케줄링 반복적으로 시행

-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여 1982년에는 외채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음.

- 동국은 수차례에 걸쳐 IMF의 구조조정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 리스케줄링을 반복하여 왔음.

<에콰도르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현황>

날짜	기산일	대상채무 (백만달러)	대상기간	조건 (A : ODA 채권; B: 기타 채권)
'03. 6. 13	1983. 1. 1	81	'03. 3.~'04. 3.	A : 20년 (거치10년); B : 18년 (거치3년)
'00. 9. 15	1983. 1. 1	880	'00. 5.~'01. 4.	A : 20년 (거치10년); B : 18년 (거치3년)
'94. 6. 27	1983. 1. 1	292	'94. 7~'94. 12	A : 19년 9개월 (거치10년3개월); B : 14년 9개월
'92. 1. 20	1983. 1. 1	339	'92. 1~'92. 12	A : 19년 9개월 (거치10년3개월); B : 14년 9개월
'89.10. 24	1983. 1. 1	393	'89. 11~'90. 12	A : 9년 5개월 (거치 4년11개월)
'88. 1. 20	1983. 1. 1	277	'88. 1~'89. 2	상환기간 : 9년 5개월(거치 4년11개월)
'85. 4. 24	1983. 1. 1	330	'84. 6~'87. 12	상환기간 : 7년 6개월 (거치 3년)
'83. 7. 28	1983. 1. 1	169	'83. 6~'84. 5	상환기간 : 7년 6개월 (거치 3년)

□ 2008년 12월, 에콰도르 정부 디폴트 선언

- 2008년 12월 에콰도르 정부는 외환보유액, 재정상황 등 양호한 거시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글로벌본드 이자(30백만 달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였음.
-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7년 11월 조직된 외채감사위원회의 채무 이행 중단 및 지연 권고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유가급락으로 인한 원유 판매수입 감소, 이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분석됨.
  - 외채감사위원회는 1976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부채, 이국간 및 다자간 채무, 파리클럽 채무 등 대외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계약건이 이중지급, 불공정 조항, 국제기구와 과거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
-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3월 2030년 글로벌본드에 대해서도 이자지급(130백만 달러)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신인도가 더욱 악화되었음.

- 현재 2015년 글로벌본드는 정상 상환 중으로, 지난 6월 2015년 글로벌본드에 대한 이자(3천 4십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디폴트를 선언한 2012년과 2030년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의 70% 할인가를 적용하여 매입하기 위해 채권단과 협의함.
- 2015년 글로벌본드에 대한 이자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이며, 에콰도르 정부는 수력발전소(Coca-Codo Sinclair)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처인 중국과의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꼬레아 정부는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본드에 대한 이자지급 보다 사회안전보장용 지출을 우선시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추가적 디폴트 선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2. 국제시장평가

### □ 국제신인도, 중남미 최하 수준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 12월 디폴트 선언 이후 에콰도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S&P: CCC- (2008. 11) → SD (2008. 12)

Moody' s: Caa1 (2008. 11) → Ca (2008. 12)

Ficth: CCC (2008. 11) → RD (2008. 12)

- S&P, Moody' s, Fitch사는, 2009년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 채권 매입을 통해 외채 규모를 축소할 점과 2015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에콰도르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에서 초고위험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S&P는 2010. 8월에 2015년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중국 등 신규 투자처 앞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에콰도르의 신용등급을 CCC+ 등급에서 B-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종전 평가 등급	최근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E (2008. 12)	E (2009. 9)
OECD	7등급 (2009. 7)	7등급 (2010. 7)
S&P	CCC+ (2009. 6)	B- (2010. 8)
Moody's	Ca (2008. 12)	Caa3 (2009. 9)
Fitch	RD (2008. 12)	CCC (2009. 9)
Euromoney	142/186 (2009. 9)	154/186 (2010. 3)
I.I.	96/178 (2008. 9)	131/178 (2009. 9)
ICRG	117/140 (2009. 8)	99/140 (2010. 4)

###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주요 ECA의 인수태도: 인수중단 또는 단기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

- US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2008년 이후 수출입규모 각각 감소 추세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에콰도르 수출은 4.38억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섬유, 철강 등이며, 수입은 약 1천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수출, 수입 각각 감소하였음.

- 한편, 2008년까지 양국의 교역관계는 2006년 대비 각각 62%, 100%씩 증가한 바 있음.

해외직접투자 잔액 (2010년 3월말 누계) : 20건, 14,578천 달러

**<표 4>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626,426	438,410	367,597	수송기계, 섬유, 철강
수 입	25,957	10,053	5,339	농수산물, 비철금속제품
합 계	652,383	448,463	372,936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에콰도르는 채무재조정 성공과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채위기를 극복한 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산업의 호조로 거시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1997년 이후 7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등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1차 상품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한 코레아 대통령은 높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기존 의회 해산 후 제헌의회 구성, 여당의 의석 과반수 획득 성공, 대통령 연임 및 권한 강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미국, 콜롬비아 등 주요교역국과의 갈등 소지가 잔존하고 있어 국제적인 평가는 양호하지 못한 상황임.
- 과거 2000년 채무재조정 성공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국제신인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본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면서 국제신인도가 크게 악화되었음.
- 2009년 두번째 채무불이행 발표 이후 에콰도르 정부가 자국 채권 매입을 통해 외채 규모를 축소하였고 2010년 6월까지 2015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신인도가 다시 소폭 개선되었으나, 재정적자의 지속과 이에 따른 추가적 채무불이행 발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용등급인 E 등급을 유지하고자 함.

【이 기 수】